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동요의 활용 방안 탐색

Utilization of Work Song for Infant-Mother Interaction

권혜진

세계사이버대학 아동보육과

Hye-Jin Kwon(hjkwon@world.ac.kr)

요약

본 연구는 현대 어린이 삶 속에서 노동요를 재조명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 소리를 찾아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된 민요와 김무현이 제시한 민요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노동요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노동요를 가정에서 어머니와 영아가 일상생활 중 상호작용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즉, 기저귀 갈면서 마사지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낮잠을 재우면서, 영유아에게 속삭이며, 목욕하면서, 목욕 후 체조하면서, 몸놀이 하면서, 마주보고 놀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요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노동요 | 영아 | 상호작용 |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consider the work song in the modern children's life and to search its utilization plan. For it, folk songs were collected from internet website(" Search for Korean Forlk song") and books, then the proper work song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selected. Selected work songs were reformed in order to utilize in a daily life including infant daily life and play in the home with mother. That is, the work song was presented to be utilized while changing a diaper, massaging, taking a rest, letting children take a nap, whispering in the children's ears, taking a bath, exercising after the bath, doing a body play, and facing each other.

■ keyword: | Work-Song | Infant | Interactuon |

I. 서론

민요는 단순히 노래로만 인식되기엔 너무나 광범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노래로 불려진다는 점에서 음악에 속하지만 생활의 정서가 담겨 있는 가사는 문학이며 농경이나 어업의 생활상이 투영되어 있기에 민속이 되기도 한다[9]. 민요는 일과 의식을 행하면서 그리고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데 일과 의식, 그리고 놀이는 모두 민중계층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행위이다[9].

민요는 구비문학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민중 생활과 밀착되어 존재하면서 생활상의 일정한 필요성에 따라 불려지는 노래와 생활상의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사실이나 가락 자체의 공감에 대해 흥을 내거나 심회를 풀기 위해 불려지는 노래가 있다[10]. K. Bucher에 의하면 민요는 노동요에서 시작되었다. 민요의 박자는 노동의 박자를 근거로 성립된 것이며 처음에는 노동요로만 존재하던 민요가 차츰 여러 가지의 양상으로 분화되었으며[9] 민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노동이 인간의 삶에서 갖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노동요가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동요는 어린이에 의한 노래이고, 민요는 성인에 의한 노래이지만 과거에는 그것을 분리하지 않았다[1]. 노동요는 일반적으로 농업, 벌채, 길쌈, 잡역, 가내 노동요 등으로 그 내용을 분류할 수 있고[16], 특히 전래동요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는 자장가, 애기 어르는 소리, 걸음마 노래가 가내 노동요로 분류되고 있어 어린이, 어머니, 향유 계층에 따라 전래 동요와 노동요로 다르게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요는 비기능요로도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놀이의 박자를 유지하고 즐거움을 더해 주며 매끄러운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강강수월래, 율노래, 연노래 등의 유희도 포함된다[2]. 뿐만 아니라 노동요의 형식은 가사가 단조롭고 반복되며, 농업 노동요의 경우 후렴이나 여흥구, 느리거나 빠르기 등 유아가 즐길 수 있는 적절한 요소들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노동요는 자연스럽게 노동 현장의 사상 감정을 나누며 피로를 덜고, 일을 흥겹게 하고 동작을 통일시키며 노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작해 불렀으며 그러기에 노동 과정 자체나 노동 기구보다도 노동 과정의 기쁨과 보람, 괴로움과 슬픔, 희망과 기대, 인정세태와 생활 풍속이 생생하게 표현된다[8].

노동요는 어린이에게 친진하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며 우리 민족의 정서와 생활 공감을 제공해 준다[2]. 또한 소리를 기본으로 하는 노동요는 유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주고 놀이를 보다 흥겹게 해 준다[7]. 뿐만 아니라 집단 창으로 불리어졌던 노동요를 통해 현재 어린이들의 경쟁, 양보, 공정성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통 놀이와 문화가 우리 민족 고유의 삶에 대한 철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린이들의 일상적 삶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7]이다.

1990년대에 들어가서 유아교육계의 주목할 만한 흐름 중에 하나는 우리 문화,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 접목된 것이다. 이전까지 외국의 이론들을 도입하여 할 우리 문화의 우수한 측면을 유아 수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한 예로 교육부의 유아 전통 놀이 교육활동 지도 자료개발을 시작으로 음식, 의복 및 가옥, 음률 등의 분야로 확대되어 지도 자료가 개발[4]된 것을 들 수 있다.

민족 고유의 문화에 가치를 부여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대 어린이들에게 옛것을 어떻게 전수해 줄 것인지, 어떻게 느끼게 해 줄 것인지 역시 제고해야 할 당위성을 느낀다. '옛 노래 부르기'와 '유아'라는 두 축을 어떻게 굿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어서 실제로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행사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노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은 단순히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는 음악 그 자체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고유의 정서를 전달하고 일체감을 느끼게 하며 그 음악을 소유한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18].

이를 종합해 볼 때 예전이나 현대에 와서나 어린이들의 삶과 어른의 삶은 구분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삶이 이어 어른의 삶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영유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온기가 꼭 필요한 시기이다[15].

영아기는 인간의 전 생애발달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기본이 형성되며, 이 때 경험하게 되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애착이 초기의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경험의 결과이며(Bowlby) 빨기, 울음, 미소, 매달리기, 따라다니기 등의 사회적 신호 체계를 모체를 통해 부모-자녀 상호 작용을 통해 애착이 발달한다[3].

이런 의미에서 민요는 영아들이 성인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적절한 매체가 될 것이며, 성인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 대면문화를 다시 재현해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더욱이 노래를 통해 노동의 고됨을 오히려 흥겹고 즐거운 일로 승화시켰

던 옛 어른들의 삶과 움직임, 여흥과 말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요가 어린이에게 향유되고 전승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니게 된다. 현재 동요는 조사 때마다 그 숫자가 줄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동요가 빈약하여[8][16] 우리 옛 노래의 원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노래를 재발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통한 노동요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현대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의 노동요를 재조명하여 우리의 노래와 정서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노동요의 특징과 적용 가능성

1. 노동요의 특징

1.1 노동요의 분류

조동일은 민요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크게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나누었다[14].

기능요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구분되는데, 노동요는 노동을 즐겁게 하고 노동의 행동을 통일시킴으로써 생산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여기에는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길쌈노동요 등이 있다. 의식요는 언어의 주술성에 의해 인간과 영혼의 의사를 교환하는 구실을 하며, 무가, 불가, 세시의식요, 장례의식요 등이 있다. 유희요는 놀이의 박자를 유지하고 즐거움을 더해 주며 매끄러운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노래이다. 강강수월래, 율곡노래, 연노래 등이 이에 속한다.

비기능요는 곡, 조의 변이가 생겨 일상의 일판, 놀이판에서 불러지지 못하고 특정의 전문가객들에 의해 불러지게 된 노래를 일컬으며 농부가, 방아타령 등이 속한다. 노동요는 그 내용에 따라 농업 노동요, 벌채 노동요, 길쌈 노동요, 잡역 노동요, 가내 노동요 등으로 그 내용을 분류할 수 있고[14] 특히 가내 노동요의 경우 자장가, 애기 어르는 소리, 걸음마 노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노동요의 형식

2.1 박자

노동요에서는 무의한 박자의 소리를 끝내면서 유의미한 말로 대치시키는데, 이는 목도꾼소리와 유사하며, 콧노래와 흡사한 박자 맞추기는 일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적절한 소리로 작용한다. 특히, 대장장이 일의 박자는 시간성과 관계 깊다. 한 줄을 부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박자이며, 빠른 템포를 위하여 팔도 도명을 나열하면 부담없이 쉽게 부를 수 있다.

2.2 운율

박자와 함께 느껴지는 운율은 덩실덩실 춤추는듯한 즐거움과 흥을 돋운다. 예를 들어 팔도지명이나 셈을 연속적으로 기억하여 흥겹게 일하게 하는 운율을 볼 수 있다.

2.3 반복 후렴구

일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반복, 후렴구는 집단적 박자를 맞추기 위해 선후창으로 부르되, 후렴은 후창으로 부른다. 고달픈 운명에 순응하자는 표현이고 일꾼들 일 잘한다고 추어주는 찬사와 무의미한 후렴구를 덧붙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가래질은 중노동이므로 여유 있게 서서히 하며, 선후창으로 나누어, 후창 하도록 하는 후렴구가 있다. 또한, 어휘도 단순 소박하여 소리하기에 부담 없으며, 중노동에 알맞게 소재와 빠른 박자를 선택하고, 소재의 문장 구성도 단조롭기 때문에 쉽게 가사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3. 유아에게 적절한 노래의 특징

유아는 보고 부르기가 아니라 주로 듣고 배우는 방법으로 터득하므로 전후 리듬과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리듬 패턴을 이루고 반복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임혜정·김영연[12]이 제시하는 유아에게 적절한 노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 박자

유아들이 선호하나 유아의 조화로운 심성 발달을 위

해 2박자나 4박자계 뿐만 아니라 3박자나 2박자계의 겹박자인 6박자 같은 부드럽고 유연성 있는 음악과 변박의 경우 변박된 부분의 가락이 유아에게 매우 익숙한 가락일 때 별 무리가 없다.

3.2 형식 및 길이

유아의 노래는 너무 길지 않아야 하며 대략적으로 16마디 내외가 적당하나 곡의 길이는 연령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연령에 비해 조금 긴 곡이라도 반복되는 형식의 곡은 노래 부르기에 용이하다. 이야기를 노래화한 것, 부르고 대답하는 형식의 곡, 자장가, 게임 송 등은 유아에게 흥미를 끌 수 있다.

III.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동요의 선정 및 구성

1. 노동요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19]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업 노동요(62편), 어업 노동요(22편), 기타 노동요(48편), 기타 민요(10편), 총 142편의 노동요와 김무현[2]이 분류한 노동요 총 74편을 검토하여 각 지방마다 중복되거나 노랫말과 곡조가 영아에게 부적절한 노래들을 제외하여 68편을 선별하였다. 이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된 노동요 32편을 선정하여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래 활용을 위해 사용하였다.

2. 영아에게 적절한 노동요의 선정 근거

임혜정·김영연[11]이 제시한 유아 동요로서의 적절성 판단의 준거로서 동요의 구성요소를 박자, 조성, 형식 및 길이, 음역, 빠르기, 셈여림, 리듬, 가락, 음정, 노랫말의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유아에게 적절한 동요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적절한 동요의 특징으로 가락의 진행은 음정의 폭이 넓지 않으며 순차 진행되는 것, 반복적 구조, 간단한 음표와 단순한 리듬, 유아의 호흡을 고려, 가사의 강세와 리듬 및 가락 표현이 적절한 것을 고려하여 노동요를 선정하였다. 또한 노래 내용이

성적 묘사나 남녀간의 연정 혹은 미움이나 증오, 허무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을 선정하였다.

3.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김미옥·현은강·나종혜[3]가 사용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목록(MIIBR)중 어머니의 발성, 근육 운동과 신체적 접촉, 신체 돌보기, 영아의 신체적 행동, 발성, 놀이 행동 범주로 활동 구성의 틀을 삼고, 그 대상은 출생에서 36개월 영아로 하였다. 영아의 일과 및 놀이 상황은 장영희[12]와 Segal이 분류한 영유아들의 연령별 놀이 활동[5]을 근거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표 1. 상호작용 행동 목록

	범주	구분
어 머 니	발성	· 영아의 발성 흉내 · 노래 · 호칭 · 질문 · 혼잣말
	근육운동과 신체적 접촉	· 손 혹은 팔을 만지거나 흔들기 · 발 혹은 다리를 만지거나 흔들기 · 쪽쪽이 시키기 · 자세변화 변화기 · 얼굴 맞대기 · 쓰다듬기 혹은 문지르기 · 뽀뽀하기 · 세우기 혹은 걸음마 시키기
	신체 돌보기	· 기저귀 교환하기 · 트림시키기 · 신체 살피기
영 아	신체적 행동	· 몸 뻗치기 · 사지 혹은 머리 움직이기 · 어머니 얼굴보기 · 잡자기
	놀이행동	· 미소짓기

IV.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을 위한 노동요의 활용

노동요의 활용 방안은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목록 범주 중 발성, 근육 운동과 신체적 접촉, 신체 돌보기 범주로 노동요의 활동을 구성하였다.

1. 발성

1.1 발성흥내

· 활동 방법

영아를 어머니의 가슴과 배 위에 올려놓고 쉬게 하면서 불러준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힘 있는 운율과반복되는 음운을 경험하게 한다.

이에 이어 어이 어이히

오아 아 아아하아

이히이 에에

(충남 홍성지방, 논매는 소리 후렴구)

불무소리는 뜨거운 불 속에서 쇠 달구기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빠르게 부른다. 특히 ‘불무딱딱 불어라’는 반복적이고 명쾌하며 빠르게 불러주며 소리의 고저를 표현하며, ‘불무’는 저음으로 ‘딱딱’은 고음으로 불러준다.

불무 딱딱 불어라(빠르게)

이시가 어디신가

경상도는 웅병시

경기도는 아성시

전라도는 늦봉시

황해도는 재령시

충청도는 뚝봉시

불무딱 불어라

(충남 공부지방, 불무소리)

영유아와 마주보고 놀이 하면서 재미있는 후렴구를 따라해 보고 말놀이를 해 본다. 반복되는 의성어의 강약, 소리의 고저에 변화를 주며 불러주어 영아가 즐거움을 느끼도록 한다.

어허허어 어허허에헤야아

하아어 허어허헤-헤

어허허어어허에헤야아

(전북 익산지방, 등짐소리)

이러 어디

어디어

어디어어디어

어이어

(강원 철원지방, 밭가는 소리)

얼레에에에에 하다디 또한단

얼레에이에에 하다디 또한단

얼러어으이에 하다디 또한단

얼러어으이에 하다디 또한단

(강원도 강릉지방 벼베기 소리)

1.2 속삭이면서

· 활동 방법

영아가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영아를 어깨에 대고 안은 상태에서 등을 부드럽게 안고 들려준다. 후렴구, 재미있는 운율을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들려주면서 속삭인다. “어진이로구나” 부분에 영아의 이름을 넣어서 들려준다.

해다졌다 해다졌다 (양산)땅에 해다졌다

방실방실 웃는애기

만나볼 해 다졌다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우리 아기 자는소리

눔으 아기 우는소리

우리 어진이 단밤 먹었

흔저 재와줍서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어진이 어진이로구나, 어진이구나, 하다... 응 기여 기여 기여, 착하다 착하다, 응, 나 아떨 착하다, 어마 착하다."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수딕 좋은 할망 자손

단밤 먹었 단잠 재와줍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제주 북제주 지방, 아기재우는 소리)

1.3 마주보고 놀이하면서

· 활동 방법

어머니는 영아와 마주보고 노래 전체를 반복해서 들려준다. 영아에게 노래를 들려주면서 노래만 들려주기, 손뼉치기 등으로 박자를 맞추어 영아가 리듬을 익히게 한다. 선창, 후창의 목소리를 다르게 하여 불러줌으로 문답 형식의 노래를 경험하게 한다. 영아가 노래가 익숙해지면 부분적으로 영아와 함께 불러본다.

마구활미 왔오

어디서 왔오

석대단서 왔오

엇드케 왔오

조기머리 먹다 목길러

수박 따러 왔오

그러며 익은 수박 하나 따소

이 수박 익었오

으하

(평남 대동지방, 수박따기 소리)

한말은가서 두말이로구나

두말은가서 세말이로구나

세말은가서 네말이로구나

네말은 가서 다섯말이로구나

(경기 김포 지방, 말되기 소리)

아래의 노래는 유아가 즐기기엔 적당하지만, 유사음운 구성되어 영아가 음운을 익히는데도 적당하다. 영아에게는 동일 음운을 강조하여 노래 가락은 최대한 단조롭고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불러준다.

특히, '올라가자 옷나무', '엮어진다 엄나무', '칭칭 울어 칭칭 나무', '후루룩 뚝뚝 국수나무' 와 같이 의태어가 포함된 노랫말은 영아에게 동작을 보여주고 함께 따라해 본다.

올라가자 옷나무 / 엮어진다 엄나무 / 방귀뀐다 뽕나무

기울온다 갈나무 / 칭칭울어 칭칭나무 / 뽕나무나 뽕진 나무 / 짹짹는 팔꽃나무 / 처녀홍과 어른될때 /

후루룩 뚝뚝 국수나무

구십구에 백자나무 / 열에아홉 스무나무 / 마흔아홉 쉬인나무 / 처녀애기 자장나무 / 장금먹고 장개가구 / 싱아먹고 시집가구 / 백국먹고 후행가구 / 째래먹고 하늬가구 / 쇠채 먹고 / 쇠바리덜구 / 딸래먹고 딸라한다.

(경기 화성, 기탁 소리)

2. 근육 운동과 신체적 접촉

2.1 팔과 다리를 쪽쪽 펴면서

· 활동 방법

팔과 다리를 가볍게 쥐거나 비틀어 주어 영아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팔과 다리를 스트레칭 시켜주면서 아래와 같은 노래를 부른다. 스카프나 넥타이를 활용하여 영아와 어머니가 당기기 놀이를 하면서 부를 수도 있다.

어기어 어기영차 어기어 어기영차

영차영차 어기영차 쉬어가자 영차

영차 영차 어서가자 영차

(전북 임실지방, 목도꾼 소리)

2.2 몸을 상, 하로 움직이면서

· 활동 방법

어머니가 영아를 천천히 위로, 아래로 움직여 주어 영아들이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위로 올리면서 부르고 내려올 때는 노랫말을 '내려온다' 로 바꾸어 불러준다.

올라 올라 올라 간다

올라간다 원어깨루 또 올라간다

여러 일꾼님네들 일심 받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인천 강화지방, 뱃단 나르는 소리)

2.3 몸을 좌, 우로 움직이면서

· 활동 방법

어머니가 아기를 앉은 자세에서 좌우로 흔들어 주면서 노래를 불러준다. 이 때 너무 빠르게 영아를 흔들지 않으며 영아의 기분 상태에 따라 노래 길이를 조절해서 부른다. 또한 어머니가 영아를 안거나 업고 달랠 때에도 불러준다.

“엄마랑 둥기 좀 해 볼까? 월싸!”

둥기 둥기 둥기야

두둥기 둥기 둥기야

먹으나 굶으나 둥기야

입으나 뱉으나 둥기야

외 뿔뿔 가지 뿔뿔

무럭무럭 잘 자라라

인천바다 조수 밀뿔

동해바다 물결치뿔

외 뿔뿔 가지뿔뿔

잔병없이 잘 자라라

둥기둥기 둥기야

(강원도 양양지방, 아이어르는 소리)

2.4 얼굴을 쓰다듬어주면서

· 활동 방법

영아의 코나 얼굴을 만져주면서 영아와 눈을 맞추고 편안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준다. 영아를 안거나 함께 누워 낮잠 채우면서 불러주어도 좋다.

눈이 커서 잊어본 것은 잘 찾겠다 자장 자장

귀가 커서 말소리는 잘 들겠다 자장 자장

코가 커서 냄새는 잘 맡겠다 자장 자장

입이 커서 상추쌈은 잘 하겠다 자장 자장

손이 커서 주는 것은 잘 받겠다 자장 자장

발이 커서 넘어지든 안 하겠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어디 갔다가 인자 왔는가

만경 갔다가 인자 왔는가

순달네 콩밭에 갔다가 인자 왔는가

(전남 장흥지방, 아이재우는 소리)

2.5 윗몸 일으켜기하며

· 활동 방법

영아를 눕혀 놓고 두 손을 꼭 잡은 후 윗몸 일으키기 놀이를 하면서, 노동요의 호흡을 불러주고 영유아와 함께 부르며 힘을 모은다.

애기야 애기야떡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전남 신안지방, 노젓는 소리)

으쌔, 아자자, 싸싸싸싸——뿔다. 누웠다. 아-편하다.

(충남 태안지방, 노젓는 소리)

2.6 토닥이며

· 활동 방법

영아들이 실외에서 나뭇잎이나 꽃잎을 주워 찢으면서 불러볼 수 있다. 또한, 실내에서도 음식을 찢거나 빵을 모습을 흉내 내면서 불러본다. 영아들이 실외에서 모래놀이를 할 때, 특히 모래집을 지으면서, 두껍아 노래와 함께 불러본다.

메떡아메떡아 또개또개 방치

밀범벅해줄끼 밀방아짱어라

아침먹이 짱어라 저녁먹이 짱어라

우리떡아씨 흰떡방아 네가 대신 짱어라

건너집치너 보리방아 네가 대신 짱어라

소가 밟아도 판판 까치가 밟아도 판판

무너질라 생각 말고 잘도잘도 지어라

(충남 보령지방, 기타 소리)

2.7 비행기 놀이

· 활동 방법

어머니가 바닥에 누워 양 다리를 영아의 배에 대고

비행기 놀이를 하면서, 특히 비행기의 이륙, 착륙, 비행 등의 소리를 내면서 놀이를 한다.

으쌔쌔쌔 여영차, 영차 영차 영차- 비행기 올라간다

어허이 어허이 허영차 허자, 허영차 짚도 난다
소리 맞춰 날아보자. “ 허, 좀 쉬었다 합시다.”

(인천지방, 그물 당기는 소리
/ 강원 양양지방 통나무목도소리 후렴구)

2.8 기어가기하며

· 활동 방법

어머니가 영아의 다리를 잡고 기어가기를 할 때 함께 부르며 힘을 돋운다. 앞 절은 어머니가 영아의 다리를 잡고 뒤로 당기면서 부르고 뒷 절은 영아가 앞으로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밀어준다.

어설렁 어설렁 내려간다
앞 등무에 그려줍세
뒤에 등무 밀어줍세
(함북 성진지방, 나무꾼소리)

앞산 점점 가까워지고
뒷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여보소 어간노 힘차게 짚소
어기여라 디여라
어기여차차 디여로서
(전남 여천 지방, 노젓는 소리)

앞산아 평계라
뒷산아 멀어라
(경남 창원지방, 나무꾼 소리)

아래와 같은 후렴구는 노래 중간중간에 넣어 부름으로 힘을 모으게 해 준다.

어기여자 어영차

에이요, 아~호
(전남 여천지방 거문노 뱃노래 후렴구 중)

2.9 엉덩방아 찢으며

· 활동 방법

폭신한 매트나 이불 위에서 어머니가 영아의 두 손을 잡고 영아가 엉덩방아 찢는 시늉을 하면서 놀이를 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방아방아 찢는 방아
콩덕콩덕 찢는 방아
언제나 다 찢고
밤 마실 갈가나
(충남 부여지방, 방아 소리)

2.10 줄다리기

· 활동 방법

실내 혹은 실내에서 머물러나 형견의 한쪽 끝을 성인이 다른 한쪽은 영아가 잡게 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불러본다.

위여차 줄다리자
위여차 줄 받아라
동네 사람 다 나와서
남녀노소 합심하여
찬발 만발 디리모아
이 줄 다려 이긴다면
우리 마을 풍을시고
(경남 밀양지방, 줄고는 소리)

에야 에야 에야
평계주제 평계주제 에야
둥에 둥서 들은 해는
일관 서산 넘어간다
에야 에야 에야
홍성나기 찬바람에
울구가는 저 기러기
손발 시러 내 못하네

에야 에야 예야

평게주제 평게주게 예야

(강원 영주지방, 그물당기는 소리)

이~위아~위

물골랑철철 물골랑철철

물골랑철철 물골랑철철

3. 신체 돌보기

3.1 배변 후 마사지 해 주며

· 활동 방법

영아가 배변을 보고 난 후 배가 편안해지도록 영아의 배를 넓게 마사지 해 주면서 불러준다. 영아가 배변 후 쾌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하고 천천히 불러준다. ‘돌이 배’ 대신에 영아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준다. 노랫말을 바꾸어 부를 수 있다.

돌이배는 똥뻘

엄마손은 약손

돌이배는 개배

엄마손은 약손

(경기, 아이달래는 소리)

똥그랑똥 똥그랑똥

얼사질사 잘넘어간다

똥그랑똥 똥그랑똥

(전북 임실지방, 똥뿌기 소리)

영아가 목욕할 때 욕조 물에 물에 뜨는 놀잇감과 인형, 머리 빗을 넣어주고 어머니가 영아의 머리를 빗겨 주거나 영아가 인형 머리를 빗겨주면서 함께 불러본다.

월계빗 주게 빗나라

참빗 주게 빗나라

저 전네는 꺼지고

이 건너는 빛나고

(경북 문경지방, 기탁 소리)

3.2 목욕하며

· 활동 방법

물뿌기 노래는 영아가 목욕을 하면서 그릇에 물을 담고 쏟는 놀이를 함께 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처음 불러줄 때는 반복 후렴구, 동작을 나타내는 말 위주로 절을 나누어 불러주다가 어머니와 영아가 노래에 익숙해지면 전체 노래를 부른다.

이~위아~위

하택에 물을리고

상택에 물받아라

이~위아~위

물을리고 물받아라

맥이 터진다

이~위아~위

자진머리로 들어간다

이~위아~위

도깨비방죽 물품자

대등바지 목축이자

3.3 목욕 후 체조하며

· 활동 방법

목욕 후 영아의 배와 팔에 입김 불어주고 팔, 다리를 스트레칭 하면서 불러준다.

처음에는 팔, 다리, 몸통 등의 신체를 움직여 주면서 불러주고 영아의 모습이나 상태를 반영하거나 움직임의 요소를 넣어 가사를 바꾸어 불러주기도 한다.

특히 ‘슬금슬금’은 부드럽고 느리게, ‘슬쩍 슬쩍’은 경쾌하고 빠르게 불러줌으로 영아가 리듬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슬-금 슬-금 나무 꺾는 소리.

슬쩍슬쩍 당겨나보자

소리로나 하여 보자

(제주도 지방, 나무꺾는 소리)

[개사의 예]

쭈쭈쭈쭈 다리뻗는 소리

쭈쭈쭈쭈 당겨보자
다리를 당겨보자

영아의 매트나 이불에 누이고 다리를 쭈 뻗게 한 뒤 두 다리를 접어 배에 닿게 하면서 내는 소리이다.

여라 여라 여기여
여라자차 어라
(인천, 줄고는 소리)

3.4 잠재우며

· 활동 방법

어머니가 영아를 재울 때 안아주거나 업고 나지막하고 느리며 편안한 목소리로 불러준다.

자장자장 우리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머레 잠도 벌 오너라
눈썹 잠도 벌 오너라
귀에 잠도 돌아오너라
코에 잠도 올라오너라
입에 잠도 올라오너라
워리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강원도 양양지방, 아이재우는 소리)

둥개둥개 두둥개
날리가는 학선이
구름위에 신선이
(전남 완도지방, 아기재우는 소리)

V. 결론 및 제언

우리의 노래는 얼굴을 마주보면서 부를 수 있는 대면 노래이고, 누구든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며, 특히 노랫말을 바꾸어도 부를 수 있는 열린 노래이자 생명력

있는 노래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동요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현대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의 노동요를 재조명하여 우리의 노래와 정서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동요의 활용 방안으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목록 범주 중 발성, 근육 운동과 신체적 접촉, 신체 돌보기 범주로 노동요의 활동을 구성하였다. 첫째, 발성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와 영아의 발성 흉내내기, 속삭이기, 마주보며 말놀이하면서 노동요를 활용한다. 둘째, 영아의 근육운동과 신체적 접촉시 팔과 다리를 쭈뻗으면서, 몸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영아의 얼굴을 쓰다듬어주면서, 윗몸 일으켜기하며, 토닥이면서, 비행기놀이하며, 기어가기하며, 엉덩방아 찼으면서, 줄다리기하면서 노동요를 활용한다. 셋째, 신체 돌보기에서는 영아 배변 후 마사지 해 주며, 목욕할 때, 목욕 후 체조하며, 잠재울 때 노동요를 활용한다.

이상의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의 발견, 향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요 활용 결과 유아의 어휘력, 상상력, 창의력, 이해 표현력,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시키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13] 전래동요에 대한 경험은 유아의 어휘 수를 400개 더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6]가 보고되었다. 또한 전래동요는 의미를 모르면서 암기 될 수 있으며 읽는 흉내를 내는 동안 진정한 읽기가 시작된다. 이러한 면에서 유아들에게 전래동요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휘의 발달을 돕는데 큰 자극제의 역할[17]을 한다. 이처럼 동요는 특히 언어적으로 풍부한 자극을 주고 이에 따라 영유아들이 즐겁게 모국어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를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 역시 교육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이 추구해 온 이상적인 인간상, 사회,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면, 현재 생활 속에서 전통 문화를 찾고 경험해 보게 하며, 앞으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2]시키는 일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통, 옛 것'이라는 말을 부지불식간

에 사용하면서 전통은 예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의 생활과 단절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서 서구 문화에 익숙해져 우리의 노래와 소리가 부자연스럽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노동요는 박자, 운율, 반복 후렴구에서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음악적 특징을 지니는 형식과 특히 집단적 박자에 맞춰 선창과 후렴구인 후창을 질서정연하게 부름으로써 협동정신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 즉 일은 성인의 것, 놀이는 어린이의 것으로 이분된 것이 아니라, 현대의 어린이들도 그 삶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이하며 향유할 수 있는 노동요로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노래에 대한 발굴 작업이 성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왔고, 노동요는 성인의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향후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통한 노동요의 적용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영아기의 사회, 정서, 언어적 발달이 초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일어남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어 왔는데(Field)[3] 영아의 일상 생활에서 어머니와의 신체적 접촉, 쿠잉, 노래, 이름 불러주기, 질문하기 등의 상호작용은 질 높은 양육, 안정적인 애착에 커다란 요소들로 꼽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어머니의 목소리와 언어 및 신체적 자극과 접촉을 통한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경험을 노동요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동요 이외 폭 넓은 노동요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영아를 위한 활동으로 노동요의 발달적 적합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향후 노동요를 활용하면서 영아의 반응과 어머니의 반응, 영아의 세부 월령에 따른 노동요의 활용 방안, 영아 및 어머니의 반응 평가, 영아-유아 비교 연구 등이 후속연구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강문희, 이혜상, 유아문학교육, 학지사, 2008.
- [2]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문학사회학적 해석, 집문당, 1990.
- [3] 김미옥, 현은강, 나종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 종단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5호, pp.167-183, 2007.
- [4] 김정준, “유치원 현장에서 전래노동요로 활용되는 노동요의 국악적 특성”, 유아교육연구, 제20권, 제3호, pp.5-22, 2000.
- [5] 김희진, 놀이로 자라는 우리 아이: 태어나서 첫돌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6] 방은경, 동시 전달하기 활동이 유치원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7] 유혜령, “전통 아동 놀이연구의 대안적 접근: 의미론적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제4권, 제3호, pp.153-177, 2001.
- [8] 이진호, “여주지방의 노동요 연구”, 새 국어교육, 제66호, pp.441-474, 2003.
- [9] 이창학, “강원도 민요 연구(1)-기능성 노동요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제9집, pp.75-89, 1992.
- [10] 임동권, 김선풍, 전인평, 최상진, 송영규, 최삼룡, 비교민속론, 민속원, 1997.
- [11] 임혜정, 김영연, “유아교육기관에서 선호하는 노동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악곡분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제24권, 제6호, pp.193-211, 2004.
- [12] 장영희, 영아교육과정, 양서원, 2001.
- [13] 정동환, 정원주, “유아의 어휘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언어 프로그램”, 한말연구, 제21호, pp.269-300, 2007.
- [14]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92.
- [15] 한국어린이육영회연수원, 예술과 생활로서의 유아 문학, 교원 워크숍 자료집, 2002.
- [16] 홍순석, “이천지역 민요조사연구(1)-노동요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24집, pp.367-404,

2003.

- [17] D. L. Russell, *Literature for children*, longman Pub. 1991.
- [18] P. S. Campbell and C. Scott-Kassner, *Music in childhood: From preschool through the elementary grades*, schirmer books Pub. 1995.
- [19] <http://www.urisori.co.kr/~main.html>

저자 소개

권혜진(Hye-Jin Kwon)

정회원



- 1996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사)
 - 2002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07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세계사이버대학 아동보육과 전임강사
- <관심분야> : 문제중심학습(PBL), 웹 기반 학습, 성인학습, 영유아교육 프로그램